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硏究

상지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金 泰 殷·金 泰 熙

Ⅰ. 序 論

人迎氣口脈은 內經에서 人迎은 人迎脈을, 氣口는 寸口 또는 脈口를 말하며, 人迎은 頸側의 動脈으로 嬰筋之前에 있으며 足陽明脈[1]이라 하였으므로 人迎脈의 部位는 頸側의 動脈이 나타나는 足陽明胃經의 人迎穴[2]을 말한다. 寸口脈의 部位는 素問 五臟別論에 五臟六府之氣味皆出於胃 變見于氣口[3]라 하여 手太陰脈의 搏動處[4]인 手腕關節의 橈骨動脈部位[5] 이다.

靈樞 四時氣篇에 人迎脈은 陽을 候하고 氣口脈은 陰을 候[6]하고 終始篇에 脈口人迎으로 陰陽의 有餘 不足을 알 수 있다[7]하였고 禁服篇에 寸口는 主中하고 人迎은 主外[8]하며, 氣口에 異常이 있으면 病이 內部에 있고 人迎에 異常이 있으면 外部에 있는 것[9]이라 하였다.

靈樞 五色篇에 人迎이 盛緊者는 傷於寒이고 氣口가 盛緊者는 傷於食[10]이라 하였다. 四時氣篇에 人迎氣口脈을 觀察하여 脈이 緊且盛且滑한 것은 病이 날이 갈수록 進行되는 것이고 脈이 軟하여 부드러우면 病勢가 漸次 내려가는 것[11]이라 했으며,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크면서 脈象이 盛하면 熱하고 虛하면 寒하며 緊하면 痛痺하고 代하면 病이 乍甚乍間하게 되며,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크면서 脈象이 盛하면 腹脹 寒中 食不化하고 虛하면 熱中 出靡 少氣 溺變色하게 되며 緊하면 痛痺하고 代하면 乍甚乍間하게 된다[12]하였다. 靈樞 五色篇에서 人迎脈의 氣가 大緊하고 浮한 者는 病이 더욱 甚해지며 人迎脈이 滑盛하며 浮한 者는 病이 날로 더하고 氣口脈이 滑小緊하며 沈한 者는 病이 더욱 甚해지고 氣口脈이 滑沈한 것은 病이 날로 더해가는 것이다[13]라 하였으나 靈樞 四時氣篇에 나타나는 病日進[14]의 槪念과 混同되어 明確한 槪念을 알 수 없다. 人迎脈과 氣口脈의 比較에 있어서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盛大하면 病이 足三陽經에 있는데 一倍가 大하면 少陽經에 二倍가 大하면 太陽經에 三倍가 大하면 陽明經에 있으며,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盛大하면 病이 足三陰經에 있는데 一倍가 大하면 厥陰經에 二倍가 大하면 少陰經에 三倍가 大하면 太陰經에 있다[15]. 또한 人迎脈이던 氣口脈이던 大하면서 躁脈이면 病이 足經絡에서 手經絡의 病으로 된 것[16]이다.

針灸 治療에 있어 靈樞 終始篇에 人迎이 盛하면 二瀉一補를 하여 瀉法爲主로 取하고 氣口가 盛한 것은 二補一瀉를 하여 補法爲主로 取한다[17]하였다.

以上으로 볼때 人迎氣口脈은 表裏, 內外, 陰陽을 區別하는 脈이나 明確한 區別法이 없고, 一盛 二盛 三盛의 比較와 十二經絡과의 相關關係및 脈象의 變化도 알기 어려워 人迎氣口脈에 대해 明確한 槪念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

人迎氣口脈은 內經의 說과 같이 頸部兩側에 있는 人迎穴과 氣口인 手太陰脈의 寸口를 比較하여 脈診한 方法과 後代에 氣口脈의 左右를 人迎氣口로 나누는 方法이 있으나, 內經에서 人迎氣口脈에 대한 考察이 不足하여 後代 醫家說에 대하여 比較 說明하기 어렵다. 內經 以後로 現在에 이르기까지 陰陽의 有餘不足을 區別하는 人迎氣口脈診은 重要한 診斷的 價値를 가지고 있어 그 意味를 正確히 把握할 必要가 있다. 이에 著者는 內經을 中心으로 人迎氣口脈의 平脈및 病脈의 脈象變化를 調査하고 內經에서 人迎氣口脈의 一盛二盛三盛의 脈象 變化에 對해 考察해 보고자 하여 內經과 後代의 醫家說을 比較 硏究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人迎氣口脈의 部位

人迎氣口脈이란 人迎은 人迎脈으로 氣口는 寸口 또는 脈口等[18]으로 쓰여져, 人迎은 足陽明經에 屬하는 結喉兩傍의 動脈處로서 足陽明客氣所發處는 手腕撓骨內側의 動脈部位의 搏動部[19]를 말한다.

人迎氣口脈에 對하여 살펴보면 人迎脈의 部位는 素問 陰陽別論에 三陽을 在頭한다[20]하였고 太陰陽明論에 陽明은 表로 三陽에 氣를 보낸다[21]고 하여, 三陽의 氣는 足陽明胃氣를 本[22]으로 하며 靈樞 寒熱病篇에 人迎은 頸側의 動脈으로 瘿筋之前에 있으며 足陽明脈[23]이라 하였으므로 人迎脈의 部位는 頸側의 動脈이 나타나는 足陽明胃經의 人迎穴을 말한다. 氣口脈의 部位는 陰陽別論에 三陰은 在手한다[24] 하였고, 太陰陽明論에 足太陰은 三陰으로 氣를 보내므로 三陰의 氣는 足太陰脾氣를 本[25]으로 한다. 그러나 足太陰脾經은 手로 流走하지 않으나 五臟別論에 五味는 胃에 藏하여 五臟氣를 養하며 氣口로 變見 하므로 氣口도 亦是 太陰[26]이라 하고 三陰은 在手한다 하였으므로 三陰은 氣口 즉 寸口脈을 말한다. 따라서 人迎 氣口脈은 頸側의 動脈인 人迎脈과 氣口脈을 按脈 하여 相應 關係를 살피는 脈法[27]이다.

그후 後代에 이르러 王叔和등은 人迎氣口란 寸口脈의 左右를 가리킨다[28]고 하였으며 이 두 種類로 解釋되어 왔다.

人迎氣口脈診法은 人迎氣口脈診法과 氣口脈에서 左人迎 右氣口로 보는 脈法이 있다. 첫째, 人迎氣口脈이란 人迎은 頸部兩側에 있는 人迎穴과 氣口인 手太陰肺經의 動脈處인 太淵穴을 比較하여 脈診하는 것이다. 靈樞 四時氣篇은 氣口는 侯陰하고 人迎은 候陽이라[29]하고 禁服篇에서는 寸口는 主中하고 人迎은 候外라[30] 했다. 氣口는 寸口이며 陰主內하고 陽主外 한다는 말과 뜻이 같다[31]. 靈樞 五色篇에 脈之浮沈과 人迎與寸口其小大等者는 病難已라[32]하고, 靈樞 論疾診尺篇에는 病에 그 寸口脈과 人迎脈이小大等及其浮沈等者는 病難已也라[33]하고, 靈樞 經脈篇에 人迎寸口를 診察하면可히 其十二經脈의 虛實을 알 수 있다[34] 하여 人迎氣口脈을 人迎은 頸部兩側에서 氣口는 手太陰寸口에서 比較 脈診한 것이다. 둘째, 左人迎 右氣口 脈診法은 素門 五臟別論에 五臟六腑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出하는데 變見於氣口라[35]했고, 靈樞 五閱五使篇은 脈口於氣口라[36] 하고, 素門 經脈別論篇은 寸口成寸하고 以決死生이라[37] 하여 단지 氣口의 脈만 診斷해도 五臟六腑의 變化를 알 수 있다 하였고 難經에서 獨取寸口 한다[38]하여 氣口의 脈만으로 診察해도 脈口의 變化는 알 수 있다 하였다.

2. 人迎氣口脈의 平脈과 病脈

(1) 平脈

靈樞 經脈篇에서는 經脈은 死生을 決定하고 百病을 處理하는 곳이며 虛實을 調節할 수 있는 곳이므로 不可不通[39]이라 하였고 終始篇에 經脈을 紀綱으로 하여 脈口 人迎脈으로 陰陽의 有餘 不足과 平 不平을 알면 天道가 畢한다[40] 하였으니, 人迎氣口脈에서 平脈이란 靈樞 終始篇에 平人이란 病들지 않은 者로서 病들지 않은 것이 人迎氣口脈이 四時에 應한 것[41]이라 하였다. 四時에 應한다고 하는 것은 四時氣逆의 變化에 따라 脈도 上下로 變化하게[42]되고, 春夏에는 陽氣微盛 秋冬에는 陰氣微盛하게 되므로 春夏에는 人迎脈이 微大하게 되고 秋冬에는 寸口脈이 微大하게 된다[43]. 이것이 人迎氣口脈이 四時에 應하는 脈이 된다.

靈樞 禁服篇에 寸口는 主中하고 人迎은 主外하며 兩者가 相應하여 俱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은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는 寸口가 微大한 것이 平人이라[44] 하였다.

따라서 人迎氣口脈에서의 平脈이란, 靈樞 禁服篇에 人迎氣口脈의 相應脈象의 引繩大小가 諸等하며 春夏에는 陽脈인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微盛 하고 秋冬에는 陰脈인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微盛하게 되며[45] 또 靈樞 五色篇에 氣口脈이 滑小緊而沈하면 病이 中에 있고 人迎脈이 大緊而浮하면 病이 外에 있고 氣口脈이 滑而沈하면 病이 內에 있고 人迎脈이 滑而浮하면 病이 外에 있는 것이라 한것[46]을 볼때 人迎脈은 陽을 主하고 氣口脈은 陰을 主하기 때문에 人迎脈에서는 浮한 脈을 平脈으로 氣口脈에서는 沈한 脈이 平脈의 기준이 되는 것[47]이다.

(2) 病脈

人迎氣口脈이 變化함에 따라 나타나는 症狀을 分類해 보면 靈樞 四時氣篇에 먼저 形을 보고 脈의 動靜을 살펴 人迎氣口脈을 觀察하여 脈이 緊且盛且滑한 것은 病이 날이 갈수록 進行되는 것이고 脈이 軟하여 부드러우면 病勢가 漸次 내려가는 것[48]이니, 禁服篇에 寸口脈은 主中하고 人迎脈은 主外[49]하므로 氣口에 異常이 있으면 病이 內部에 있고 人迎에 異常이 있으면 外部에 있는 것[50]이라 하였다.

靈樞 五色篇에 人迎脈이 盛하고 緊한 것은 外部로부터 寒邪에 損傷된 것이고 氣口脈이 盛 緊한 것은 內部가 飮食에 依해 損傷된 것[51]으로서, 禁服篇에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크면서 脈象이 盛하면 熱하고 虛하면 寒하며 緊하면 痛痺하고 代하면 病이 乍甚乍間하게 되며,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크면서 脈象이 盛하면 腹脹 寒中 食不化하고 虛하면 熱中 出靡 少氣 溺變色하게 되며 緊하면 痛痺하고 代하면 乍甚乍間하게 된다[52]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迎은 表로서 外部에 病을 나타내며 浮脈을 平脈으로 陽候의 有餘 不足을 나타내는 것이며 氣口는 裏로서 內部에 病을 나타내며 沈脈을 平脈으로 陰候의 有餘 不足을 나타내는 것이다.

病이 臟에 있을때 沈而大한 것은 쉽게 낫는 것이고, 病이 腑에 있을때는 浮而大한 것은 病이 낫기가 쉽다[53]고 하였다. 靈樞 五色篇은 人迎脈의 氣가 大緊而浮한 者는 病이 더욱 甚하여지고 人迎脈이 滑盛而浮한 者는 病이 날로 더한다고 하였고 氣口脈이 滑小緊而沈한 者는 病이 더욱 甚하여지고 氣口脈이 滑而沈한 것은 病이 날로 더하여 가는 것이고 人迎氣口脈이 浮하거나 沈하면서 大小가 같으면 難治이며 病이 腑에 있으면서 脈이 浮而大하면 易治다. 人迎脈이 盛緊하면 傷於寒이고 氣口脈이 盛緊하면 傷食이고 氣口脈이 滑小緊而沈하면 病이 中에 있고 더 甚하게 되며 人迎脈이 大緊而浮하면 病이 外

에 있고 더 甚하게 된다. 氣口脈이 浮滑하면 病이 덜하여 지며[54] 人迎脈이 沈而滑하면 病이 漸次 回復된다. 氣口脈이 滑而沈하면 病이 內에 있고 더 甚하게 되며 人迎脈이 滑而浮하면 病이 外에 있고 더 甚하게 된다[55]고 하였다.

이는 人迎氣口脈이 모두 緊, 盛, 滑하면 病이 惡化하는 것이고, 軟하면 病이 回復되는 것이며 人迎은 浮한 脈이 沈하면 病이 낫고 氣口는 沈한脈이 浮해 지면 病이 낫는 것이며, 人迎脈이던 氣口脈이던 모두 緊하면 痛痺이고, 代脈이면 乍甚乍間하는 것이며 脈象 變化에 의한 症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人迎
  - 浮脈 - 平脈
  - 盛 - 熱
  - 虛 - 寒
  - 大緊而浮, 滑以浮 - 病在外, 甚
  - 沈而滑 - 病回復
  - 盛緊 - 傷於寒
- 氣口
  - 沈脈 - 平脈
  - 盛 - 腹脹 寒中 食不化
  - 虛 - 熱中 出厥 少氣 溢變色
  - 滑小緊而沈, 滑而沈 - 病在內, 甚
  - 浮而滑 - 病日進
  - 盛緊 - 傷食

3. 人迎氣口脈의 一盛二盛三盛

(1) 人迎氣口脈의 盛과 倍

素問 六節臟象論에 人迎脈이 一盛으로 大할 때는 病이 少陽經에 있고 人迎脈이 二盛으로 大할 때는 病이 太陽經에 人迎脈이 三盛으로 大할 때는 病은 陽明經에 있다. 寸口脈이 一盛으로 大할 때는 病이 厥陰經에 있고 寸口脈이 二盛으로 大할 때는 病이 少陰經에 寸口脈이 三盛으로 大할 때는 病이 太陰經에 있다 하였다. 人迎脈이 四倍가 盛大할 때 格陽이라 하고 寸口脈이 四倍가 盛大할때 關陰이라 하고, 人迎氣口脈이 모두 四倍가 될 때는 關格 이라 하여 關格의 脈은 盛大하고 차고 넘치므로 天地의 精氣를 다하지 못해 마침내 죽게 된다[56]하였다.

素門 腹中論 또한 人迎이 一盛하면 少陽에 있고 人迎이 二盛하면 太陽에 있고 人迎이 三盛하면 陽明에 있다[57] 하였다.

靈樞 終始篇에 人迎의 脈이 寸口脈의 一倍가 될 때는 病이 足少陽에 있고 이 경우 躁脈이 나타날때는 病이 手少陽에 있다. 人迎脈이 寸口脈의 二倍가 될 때는 病이 足太陽에 있고 躁脈이면 病이 手太陽에 있다. 人迎脈이 寸口脈의 三倍가 될 때는 病이 足陽明에 있고 이에 躁脈이면 病이 手陽明에 있다. 寸口의 脈이 人迎脈의 一倍가 될 때는 病이 足厥陰에 있고 이에 躁脈이 나타나면 病이 手厥陰에 있다. 寸口의 脈이 人迎脈의 二倍가 될 때는 病이 足少陰에 있고 이에 躁脈이면 病이 手少陰에 있다. 寸口의 脈이 人迎脈의 三倍가 될 때는 病이 足太陰에 있고 이에 躁脈이면 病이 手太陰에 있다. 人迎脈이 寸口脈의 四倍가 되며 大脈이고 또 數脈일때 溢陽이라 하여 陽이 넘쳐 外가 拒否하므로 外格이라 하며, 寸口脈이 人迎脈의 四倍가되며 大脈이고 또 數脈일때 溢陰이라 하여 陰이 넘쳐 內가 閉鎖되므로 內關이라 하며 內關은 陰陽이 不通 하므로 不治하여 死하게 된다 하였고, 人迎寸口脈이 함께 四倍以上으로 될 때 關格이라 하여 陰陽이 따로 떨어져 分散된 狀態인 것이고 四倍以上이면 不治하여 死하는 것[58]이다.

以上에서 보면 人迎脈과 氣口脈이 倍하거나 盛하거나 하는 것은 經絡도 같으며, 王은 一盛은 一倍를 意味한다[59] 하여 倍와 盛은 같은 뜻이다.

人迎이 氣口보다 一盛하면 足少陽, 二盛하면 足太陽, 三盛하면 足陽明, 氣口가 人迎보다 一盛하면 足厥陰, 二盛하면 足少陰, 三盛하면 足太陰에 있고, 躁하면 手의 같은 經에 病이 있는데 張은 躁者는 陰中之動象[60]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2) 人迎氣口脈의 盛虛

盛虛는 靈樞 經脈篇에 手太陰肺經脈은 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三倍가 크며 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반대로 작다. 手陽明大腸經脈은 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三倍가 크며 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반대로 작다. 足陽明胃經脈은 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三倍가 크며 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반대로 작다. 足太陰脾經脈은 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三倍가 크며 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반대로 작다. 手少陰心經脈은 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두倍가 크며 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반대로 작다. 手太陽小腸經脈은 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두倍가 크며 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반대로 작다. 足太陽膀胱經脈은 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두倍가 크며 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반대로 작다. 足少陰腎經脈은 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두倍가 크며 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반대로 작다. 手厥陰心包經脈은 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一倍가 크며 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반대로 작다. 手少陽三焦經脈은 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一倍가 크며 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반대로 작다. 足少陽膽經은 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一倍가 크며 虛者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반대로 작다. 足厥陰肝經脈은 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一倍가 크며 虛者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반대로 작다[61] 하였다. 人迎氣口脈의 比較는 盛者의 境遇에 있어서는 人迎이 氣口보다 一倍가 큰 경우는 手足少陽經인 三焦와 膽經이고, 二倍가 큰 경우는 手足太陽經인 小腸과 膀胱經이고, 三倍가 큰 경우는 手足陽明經인 大腸과 胃經이고, 氣口가 人迎보다 一倍가 큰 경우는 手足厥陰經인 心包와 肝經이고, 二倍가 큰 경우는 手少陰經인 心과 腎經이고, 三倍가 큰 경우 手足太陰經인 肺와 脾經이다. 虛者의 境遇는 같은 境遇에서 人迎氣口가 바뀌어 작다고만 했다.

또한 虛者則 寸口反小於人迎을 馬는 寸口較人迎之脈 三倍而小라하고, 張은 寸口反小於人迎이라[62] 하여 虛인 경우 脈象의 크기에 對하여는 一定하지 않다.

그러나 章楠은 醫門棒喝에서 人迎氣口脈을 氣口는 兩手之脈을 人迎은 頸側의 動脈에 있으며, 無病한 사람은 人迎脈이 寸口脈에 비해 粗大한데 가령 無病한 本脈이 寸口는 大一分하고 人迎이 大二分하다면 이는 本來의 脈形이라하고, 診病할때 人迎이 大二分하고 寸口脈이 大一分한 것이 本來의 脈形이나 寸口脈이 大二分하게 되면 이를 寸口倍於人迎이라 하여 邪盛 在陰함을 알수 있다. 虛者는 寸口脈이 細小하여 一分의 本脈보다 적으면 이를 人迎보다 적다고 한다. 萬若 人迎의 脈이 本來 大二分인 者가 四分이 되고 寸口가 大一分이면 이를 人迎倍大於寸口라 하고 邪盛在陽함을 알 수 있으며 虛者는 細小하여 二分의 本脈보다 적으면 이를 寸口보다 적다고 하여, 먼저 本脈을 알고 그 다음 病脈을 辨하여야 한다[63] 하였다.

따라서 虛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一倍, 二倍, 三倍의 크기에 關係없이 오히려 反對로 小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人迎脈과 氣口脈의 크기가 뒤 바뀌는 것으로서 一盛, 二盛, 三盛의 크기와는 關係없이 모두 反對로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 經脈의 盛과 虛 즉 虛實만을 區別하고 一倍, 二倍, 三倍와 虛實에 區別을 明確히 할 수 없다. 즉 章楠이 말한 것처럼 人迎과 氣口의 絶對的 크기를 定하여 脈象을 判別하는 것이 아니며 後世에 가서 醫家들에게 臟腑配屬과 脈象 判別에 基礎가 되었다 할 수 있다.

(3) 人迎氣口脈과 十二經絡의 虛實 症狀

人迎氣口脈의 變化에서 보면 靈樞 經脈篇에 手太陰肺經脈은 氣有餘한즉 肩背痛,風寒, 中風汗出, 小便數하며 氣虛者는 肩背痛寒하며 少氣하고 숨이 가쁘며 溺變色한다. 手陽明大腸經도 氣有餘즉 熱腫하고 虛한즉 寒慄不復한다[64] 라고 하였으나 그 外 經絡의 虛實 病症은 經絡의 흐름에 따라 經絡에 發生되는 是動病과 各 臟腑에 病이 發生되어 나타나는 所生病의 症狀만 列擧하고 盛虛는 言及이 없다. 여기서는 또 手足經의 區分을 躁脈에 의해 區別하지 않았다.

(4) 人迎氣口脈과 陰陽表裏 配合

素門 血氣形志篇에 足太陽과 少陰은 表裏이고 少陽 厥陰이 表裏이고 陽明太陰이 表裏이며 이것이 足陰陽이고, 手太陽과 少陰은 表裏이고 少陽과 厥陰이 表裏이고 陽明 太陰이 表裏이며 이는 手陰陽이다[65] 하였으므로 太陽과 少陰, 少陽과 厥陰, 陽明과 太陰은 表裏로 되어 있으니 人迎氣口脈은 一盛은 少陽經과 厥陰經, 二盛은 太陽經과 少陰經, 三盛은 陽明經과 太陰經의 表裏關係로 짝 지어져 있다.

이를 內經註釋書에서 張志聰은 三陽爲經 二陽爲維 一陽爲遊部 蓋陽明經氣維於身之前 太陽經氣經於身之後 少陽之氣爲遊行出入之樞也[66]라 하였다.

그러나 素門 陰陽別論에서 王冰은 一陽은 少陽, 二陽은 陽明, 三陽은 太陽이라 하고 一陰은 厥陰, 二陰은 少陰, 三陰은 太陰[67]이라 하였는데 人迎氣口脈의 一盛二盛三盛과 無關하다.

難經 第十八難에 脈有三部 部有四經이 있는데 三部는 寸關尺이고 部有四經은 部에는 四經이 있으며 手에는 太陰 陽明이 足에는 太陽 少陰이 있어 上下部를 이루는데 手太陰陽明은 金이고 足少陰太陽은 水로 金生水의 關係가 이루어 지고 太陽少陰은 水이므로 下行하여 上하지 못하므로 下部에 있게된다. 足厥陰少陽은 木으로 手太陽少陰火를 生하는데 火는 炎上하여 下하지 못하므로 上部에 있다. 手心主少陽火는 足太陰陽明土를 生하므로 土는 中宮을 主하므로 中部에 位置한다[68] 하였다. 여기서 部有四經과 比較해 볼때 表裏關係로 說明을 하였고 後代에 가서 人迎氣口脈이 寸口의 左人迎 右氣口로 나누어 진 것으로 미루어 人迎氣口脈의 一盛二盛三盛이 이 過程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5) 針治療面에서 考察

人迎氣口脈診으로 針灸治療에 對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 終始篇에 少氣者는 氣口人迎 모두 함께 小하고 寸口와 尺의 調和가 맞지 않으며 이는 陰陽氣가 모두 不足한 것이니 먼저 甘藥으로 補해 주고 뜸을 뜨지말며 瀉法을 쓰면 五臟의 氣가 破壞된다[69] 하였고, 熱病篇에 熱病 三日에 氣口脈이 靜하고 人迎脈이 거칠면 病邪가 表인 陽經에 있으니 五十九刺를 取한다 하였다. 그 熱을 瀉하고 身熱이 甚하나 陰陽脈 모두 靜하면 刺針하지 말고 刺針할 경우는 急히 針을 놓되 땀이 안나고 邪氣鬱結된 것은 邪를 泄시키고 刺針하지 말라는 것은 死症이라[70]하였다. 熱病 七日 八日에 脈口動하고 喘하며 短者는 汗沮自出하니 急刺[71]하고,禁服篇에 人迎氣口脈이 盛하여 實하면 瀉하고 虛하면 補하고 緊痛할 때는 分肉을 取하여 刺針하고 代脈이면 絡脈의 鬱血을 瀉血하고 藥을 쓰며 陷下된 것은 灸를 하고 人迎氣口 모두 虛實이 없을때는 其經을 取하여 刺針하며 이를 經刺[72]라 하였다. 小針解篇에 寸口가 虛할때는 補法으로 實하게 하고 盛하면 瀉한다[73] 하였고, 陰陽二十五人篇에는 人迎寸口脈으로 陰陽氣를 調節하는데 人體의 上部의 氣가 有餘한 者는 下部에 取

穴하여 氣를 誘導하고 上部의 氣가 不足한 者는 留針하여 氣를 밀어 올린다[74]고 하였다.

人迎氣口脈의 一盛, 二盛, 三盛의 變動에 따른 虛實補瀉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 終始篇에 人迎脈이 一盛일 때는 足少陽膽經을 瀉하고 足厥陰肝經을 補하며 瀉法二穴 補法一穴로 一日에 一回 取하고, 躁脈일 때는 手少陽三焦經과 手厥陰心包經을 取한다. 人迎脈이 二盛일때는 足太陽膀胱經을 瀉하고 足少陰腎經을 補하며 瀉法二穴 補法一穴로 二日一回 取하고, 躁脈일때는 手太陽小腸經과 手少陰心經을 取한다. 人迎脈이 三盛일때는 足陽明胃經을 瀉하고 足太陰脾經을 補하며 瀉法二穴 補法一穴로 一日二回 取하고, 躁脈일 때는 手陽明大腸經과 手太陰肺經을 取한다 하였다.

寸口脈이 一盛이면 足厥陰肝經을 瀉하고 足少陽膽經을 補하며 補法二穴 瀉法一穴로 一日一回 取하고, 躁脈일때는 手厥陰心包經과 手少陽三焦經을 取한다. 寸口脈이 二盛이면 足少陰腎經을 瀉하고 足太陽膀胱經을 補하며 補法二穴 瀉法一穴로 二日一回 取하고, 躁脈일때는 手少陰心經과 手太陽小腸經을 取한다. 寸口脈이 三盛이면 足太陰脾經을 瀉하고 足陽明胃經을 補하며 補法二穴 瀉法一穴로一日二回 取하고, 躁脈일때는 手太陰肺經과 手陽明大腸經을 取한다 하였다. 人迎寸口가 三倍以上일때는 陰陽이 모두 溢하여 不開 즉 血脈이 閉鎖되어 氣가 行함이 없어 中으로 흘러 五臟이 內傷이 되므로 灸를 한다[75]하였다.

醫經註釋에서 馬는 人迎一盛하면 病이 足少陽膽經에 있는데 膽과 肝은 表裏이기 때문에 膽實이면 肝虛해 진다. 따라서 當然히 足少陽膽經을 瀉하고 足厥陰肝經을 補한다 하였고 나머지도 이와같이 한다[76]하여 治療法을 說明하고 있다.

이 人迎脈이 盛할 時는 一盛 二盛 三盛 모두 同一하게 陽經을 瀉하고 陰經을 補하며 二穴을 瀉하고 一穴을 補하며, 氣口脈이 盛할 때는 一盛 二盛 三盛에 관계없이 모두 陰經을 瀉하고 陽經을 補하며 二穴을 補하고 一穴을 瀉하고 있다.

이에 醫經註釋에서 張은 陽은 두번 瀉하고 陰은 한번 瀉하는 것은 陽은恒常 有餘하고 陰은 恒常 不足하기 때문이며, 陽을 두번 補하고 陰을 한번 補하는 것은 陽은 可히 盛하나 陰은 不可盛也이라[77] 하여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人迎脈은 三陽의 氣를 알 수 있고 陽에 屬하며 外,表를 主하고 六腑의 狀態를 알며 氣口脈은 三陰의 氣를 알 수 있고 陰에 屬하며 內,裏를 主하고 五臟의 狀態를 알 수 있으니,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크면 外傷이며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크면 內傷이라 하였다. 外感風寒은 모두 有餘寒證이며 內傷飮食및 飮食不節 勞役不節은 모두 不足之病 이다. 따라서 外感風寒은 陽이며 內傷은 陰이고 裏가 되는데 左側은 陽이므로 主表하고 右側은 陰이므로 主裏[78]한다 하였다.

따라서 人迎脈이 盛한것은 陽 즉 外에 邪氣가 有餘한 것으로 瀉法爲主로 取穴하고, 氣口脈이 盛한 것은 陰 즉 內에 精氣가 不足한 것으로 補法爲主로 取穴한 것을 알 수 있다.

針治療 回數는 人迎이 盛하든 氣口가 盛하던 一盛時는 一日一回 取하고, 二盛時는 二日一回 取하고, 三盛時는 一日二回 取하였고 靈樞 終始篇에 陽明은 主胃하므로 穀氣가 많아 一日二回 取할 수 있다[79] 하였다. 그러나 素門 血氣形志篇에 太陽은 항시 多血少氣하고 少陽은 항시 少血多氣하고 陽明은 항시 多氣多血하고, 少陰은 항시 少血多氣하고 厥陰은 항시 多血少氣하고 太陰은항시 多氣少血한것[80]이라 하였으나 針治療에 있어서는 六經의 氣血의 多少와 無關한 것 같다.

Ⅲ. 結 論

以上에서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人迎氣口脈의 平脈은 人迎脈은 浮脈을 平으로 氣口脈은 沈脈을 平으로본다.

2. 人迎脈은 外感을 主하고 氣口脈은 內傷을 主한다.

3. 人迎은 陽이므로 浮脈을 主하고 이것이 沈으로 갈때 病이 나아진다. 氣口는 陰이므로 沈脈을 主하고 이것이 浮로 갈때 病이 나아진다.

4. 人迎氣口脈이 緊,滑,盛하면 病이 甚해진다.

5. 一盛二盛三盛은 一倍二倍三倍와 같으며 躁한 것은 手經에 病이 있다.

6. 一盛二盛三盛은 針治療 補瀉에 있어서 人迎이 盛하면 二瀉一補하고 氣口가 盛하면 一瀉二補인 것으로 보아 人迎은 陽이므로 實을 主하고 氣口는 陰이므로 虛를 主하는 것 같다. 그러나 實際 病症에 있어서 氣口가 盛할때 虛하면 人迎이 反對로 크다고 하여 반드시 人迎은 陽으로 實을 主하고 氣口는 陰으로 虛를 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理論的인 槪念을 設定하는 過程일 수도 있다.

7. 人迎氣口脈이 一盛時는 一日一回 取하고 二盛時는 二日一回 取하고 三盛時는 一日二回 取하여 一盛二盛三盛이 六經의 氣血多少와는 無關하다.

8. 一盛二盛三盛의 例를 보아 그것이 表裏手足關係로 이루어 졌음을 볼때 이는 難經第十八難에서 말한 部有四經을 說明하는 契機가 된 것임을 推測할 수 있다.

9. 一盛二盛三盛에 關係없이 肺經과 大腸經에 있어서만 그 經絡의 虛實을 說明하였으며 그 外의 經絡은 說明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때 一盛二盛三盛에 對한 虛實의 區別은 章楠이 말한 대로 人迎이 二倍하고 氣口가 一倍한 基準을 세우고 그 基準下에서 더 커지고 적어짐을 말한 것이 아니다.

10. 人迎과 氣口는 內傷과 外感을 區別하는 診法의 하나로 앞으로 많은 硏究가 必要하다 하겠다.

參考文獻

1.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硏究.서울.慶熙大學校 大學院.1987
2. 金泰熙. 靈樞.五色篇中 其脈口 浮滑者 病日進의 解釋에 對한 考察. 서울.1989
3. 羅慶燦.脈의 發生과 診脈法의 變化.東國大學校 大學院.1992
4.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硏究院.1981
5. 洪元植. 黃帝內經.서울 高文社.1974
6. 洪元植. 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硏究院.1987
7. 王叔和. 脈經.香港.太平書局.1982
8. 李杲. 內外傷辨. 東垣十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2
9. 張介賓. 類經.서울.大星文化社.上卷.1982
10. 章楠. 醫門棒喝.서울.東南出版社.1978
11. 陳夢雷. 醫經註釋(醫部全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二冊).1988
12. 扁鵲.校正圖註難經.서울.翰林社.卷一.1974

註釋

1) 洪元植.黃帝內經.서울.高文社.p.318
2) 金泰熙.內經의脈診과後代醫家說의比較硏究.서울.慶熙大學院.1987.P.16
3) 洪元植.上揭書.p.37
4) 洪元植.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硏究院.1987.p.76
5) 羅慶燦.脈의 發生과 診脈法의 變化.東國大學校 大學院.1992. P.30
6)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 硏究院.1981.p.248.
   氣口候陰人迎候陽.
7) 洪元植.黃帝內經.서울.高文社.1974.p.299
   終始篇;持其脈口人迎 以知陰陽有餘不足
8) 洪元植.上揭書.P.291
   禁服篇;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大小齊等
9) 金泰熙.靈樞五色篇中 其脈口浮滑者病日進의 解釋에 對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1987.P.51
10)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293
   五色篇; 人迎盛緊者 傷於寒 氣口盛緊者 傷於食
11) 洪元植.上揭書. P.248
   四時氣篇; 持氣口人迎 以視其脈 緊沮盛沮滑者 病日進 脈軟者 病將下
12)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291
   禁服篇.人迎大于寸口 盛卽爲熱 虛則爲寒 緊則爲痛痺 代則且甚且間...寸口大于人迎 盛則腹脹寒中食不下 虛則熱中出靡少氣溺變色 緊則痛痺 代則 乍甚乍間
13) 洪元植.上揭書.P.293
   五色篇;人迎氣大緊以浮者 其病益甚 在外 其脈口浮滑者 病日進 人迎沈而者 病日損 其脈口滑以沈者 病日進 在內 其人迎脈滑盛以浮者 其病日進在外 脈之浮沈及人迎與寸口氣小大等者 病難已
14) 洪元植.上揭書.P.248
   四時氣篇; 持氣口人迎以視其脈 緊沮盛沮滑者 病日進
15) 洪元植.上揭書.p.27.
   六節藏象論;故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寸口一盛 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
16) 洪元植.上揭書.P.300
   終始篇;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17) 洪元植.上揭書.P.226
   終始篇;人迎一盛 瀉足少陽而補足厥陰 二瀉一補 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疎取之上氣和乃止 人迎二盛 瀉足太陽而補足少陰 二瀉一補 二日一取之...人迎三盛 瀉足陽明而補足太陰 日二取之.., 脈口一盛 瀉足厥陰而補足少陽 二補一瀉 日一取之... 疎取之上...脈口二盛瀉足少陰而補足太陽 二補一瀉 二日一取之...脈口三盛 瀉足太陰而補足陽明 二補一瀉 日二取之...
18) 張介賓.類經.서울.大星文化社.上卷.1982.p.57.
   氣口之義 其名有三 手太陰肺 肺經脈也 肺主氣 氣之盛衰 見于此 故曰氣口, 肺朝百脈脈之大會聚于此故曰脈口,脈出太淵其長一寸九分 故曰寸口 是名屬三 其實卽一耳.
19) 羅慶燦.脈의 發生과 診脈法의 變化.東國大學校 大學院.1992.P.28
20) 洪元植.精校黃帝內經.上揭書.P.22
21) 洪元植.上揭書.P.63
22) 洪元植.上揭書.P.229
23) 洪元植.黃帝內經.서울.高文社.1974.p.318.
24) 洪元植.上揭書.p.26
25) 洪元植.上揭書.p.84
26) 洪元植.上揭書.p.37
27) 金泰熙.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硏究.서울.慶熙大學校 大學院.1987.p.16

37) 洪元植.上揭書.p.48
38) 扁鵲.難經.校正圖註難經.서울.翰林社.卷一.1974.p.1
39)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229
40) 洪元植.上揭書.p.300
41)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226
42) 金泰熙.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硏究.前揭書.p.11
43) 洪元植.上揭書.p.226: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44) 洪元植.上揭書.p.291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是者 名曰平人
45)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342
46) 洪元植.上揭書.p.293
47) 金泰熙.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硏究.p.17
48) 洪元植.上揭書.P.248
四時氣篇; 一其形 聽其動靜者 持氣口人迎 以視其脈 緊沮盛沮滑者 病日進 脈軟者病將下 諸經實者 病三日已 氣口候陰 人迎候陽
49) 洪元植.上揭書.P.291
禁服篇; 寸口主中 人迎主外
50) 金泰熙.靈樞五色篇中 其脈口浮滑者病日進의 解釋에對한 考察.서울.慶熙大學校. 1987.P.51
51) 洪元植.上揭書.P.293
五色篇; 人迎盛緊者 傷於寒 氣口盛緊者 傷於食
52)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291
禁服篇; 人迎大于寸口 盛卽爲熱 虛則爲寒 緊則爲痛痺 代則且甚且間...
寸口大于人迎 盛則腹脹寒中食不下 虛則熱中出靡少氣溺變色 緊則痛痺 代則 乍甚乍間
53) 洪元植.上揭書.P.293
五色篇; 病之在臟 沈而大者 易已 病在腑 浮而大者 其病易已
54) 金泰熙.靈樞 五色篇中 其脈口浮滑者病日進의 解釋에 대한 考察. 서울.1989.p.51
55) 洪元植.上揭書.p.293
五色篇;外內皆在焉 切其脈口 滑小緊以沈者 病益甚 在中 人迎氣大緊以浮者 其病益甚 在外 其脈口浮滑者 病日進 人迎沈而滑者 病日損 其脈口滑以沈者 病日進 在內 其人迎脈滑盛以浮者 其病日進 在外 脈之浮沈及人迎與寸口氣小大等者 病難已病之在臟 沈而大者 易已 小爲逆 病在腑 浮而大者 其病易已 人迎盛堅者 傷於寒氣口盛堅者 傷於食.
56) 洪元植.精校黃帝內經.前揭書.p.27.
六節藏象論; 故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寸口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人迎四盛 以上爲格陽...寸口四盛而上爲關陰... 人迎與寸口具盛 四倍以上爲關格 關格之脈 不能極於天地之精氣卽死也.
57) 洪元植.上揭書.p.81
腹中論; 人迎一盛少陽 二盛太陽 三盛陽明.
58) 洪元植.上揭書.P.226
終始篇;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陽溢陰者內關 內關不通 死不治...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名曰關格關格者 與之短期.
59) 洪元植.黃帝內經.서울.高文社.1974.p.34
手陽明大腸脈一盛者 謂人迎之脈大于寸口一倍也 餘盛同法
60) 陳夢雷.醫經註釋.前揭書.p.68
61) 洪元植.上揭書.p.229-235.
肺手太陰之脈 盛者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卽寸口反小於人迎也, 大腸手陽明之脈盛者 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卽人迎反小於寸口, 胃足陽明之脈盛者 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卽人迎反小於寸口, 脾足太陰之脈 盛者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寸口反小於人迎也, 心手少陰之脈盛者寸口大再倍於人迎 虛者寸口反小於人迎也, 小腸手太陽之脈 盛者人迎大再倍於寸口 虛者 卽人迎反小於寸口也, 膀胱足太陽之脈 盛者人迎大再倍

氣口兩手之脈 頸側之動脈人迎 凡無病之尺 人迎之脈原比寸口粗大 假如無病之本脈寸口大一分 人迎大二分 此本來之脈形 診病之時 人迎之脈照常大二分 寸口之脈 本大一分者 今大有二分 是謂寸口倍於人迎 知其邪盛在陰也 其虛者細小不及一分之本脈 是謂反小於人迎也 若人迎之脈本二分者 今大至四分 其寸口乃照本脈大一分 是謂人迎大於寸口 知其邪盛在陽也 其虛者細小不及二分之本脈是謂反小於寸口也 故經教人先識本脈而後方能辨其病脈.

64) 洪元植,上揭書.p.229-235.
經脈篇; 肺手太陰之脈 氣盛有餘卽肩背痛 風寒 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卽 肩背痛寒 小氣不足以息溺變色...大腸手陽明之脈 氣遺與卽 當脈所過者熱腫 虛卽 寒慄不復.

65) 洪元植.上揭書.p.52.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陰陽也. 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

66) 陳夢雷.醫經註釋(醫部全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二冊).1988.p.91

67) 洪元植.黃帝內經.高文社.前揭書.p.27

68) 扁鵲.扁鵲.校正圖註難經.前揭書.p.1
脈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爲上下部何謂也....手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69) 洪元植.精校黃帝內經.上揭書.P.226.
終始篇; 少氣者 脈口人迎口小而不稱尺寸也 如是者卽陰陽俱不足 補陽卽陰竭 寫陰足陽脫如是者 可將而甘藥 不可陰以之齊 如此者 弗灸 不已者 因而寫之 卽五臟氣塊矣

70) 洪元植.上揭書.P.254
熱病篇; 熱病三日而氣口靜 人迎躁者 取之諸陽五十口刺 以寫熱....身熱甚 陰陽皆靜者 勿刺也 其可刺者急取之 不汗出卽泄 所謂勿刺者有死徵也

71) 洪元植.上揭書.P.254
熱病篇; 熱病已得汗出 而脈尙躁 喘沮復熱 勿刺膚 喘甚者死

72) 洪元植.上揭書.P.291
禁服篇; 盛則寫之 虛則補之 緊痛則 取之分肉 代則取血絡 沮欲藥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名曰經刺

73) 洪元植.上揭書.P.211
小針解篇; 氣口虛而 當補之也 氣口盛而 當寫之也

74) 洪元植.上揭書.P.315
陰陽二十五人篇;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其有餘於上者 導而下之氣不足於上者 推而休之 其氣留不止者 因而迎之 必明於經隧 乃能持之

75) 洪元植.上揭書.P.226
終始篇; 人迎一盛 瀉足少陽而補足厥陰 二瀉一補 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疎取之上氣和乃止 人迎二盛 瀉足太陽而補足少陰 二瀉一補 二日一取之...人迎三盛 瀉足陽明而補足太陰 日二取之...脈口一盛 瀉足厥陰而補足少陽 二補一瀉 一日取之... 疎取之上...脈口二盛 瀉足少陰而補足太陽 二補一瀉 二日一取之...脈口三盛 瀉足太陰而補足陽明 二補一瀉 日二取之...人迎與脈口俱盛三倍以上 命曰 陽俱溢 如是者 不開則血脈閉塞 氣無所行 流淫於中 五臟內傷 如此者 因而灸之 則變易而爲他病矣

76) 陳夢雷.醫經註釋.前揭書.p.69
人迎一盛 病在足少陽膽經 則膽與肝爲表裏 乃膽實而肝虛也 當瀉足少陽膽經 而補足厥陰肝經... 由此推之

77) 陳夢雷.醫經註釋.前揭書.p.70
補瀉者 和調陰陽之氣也 陽二瀉而陰一瀉者 陽常有餘而陰常不足也 陽補二而陰補一者 陽可盛而陰不可盛也

78) 李杲.內外傷辨.東垣十書.서울.大星文化社.1982.P.29

79) 洪元植.前揭書.p.227

80) 洪元植.上揭書.p.52
素門 血氣形志篇;夫以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氣少血 此天地常數.

ABSTRACT

study of comparison between Nae-gyung(內經) and later physian's theory on In-yeong-gi-go Maek(人迎氣口脈).

Kim, Tae-Eun
major in History and Classic Books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Sang-Ji University
<Direct by Prof. Kim, Tai-Hee. O.M.D., Ph.D.>

In Nai-Gyung(內經), it is said that In-Yeong(人迎) means In- Yeong Maek(人迎脈), Gi-Gu m- eans Tson-Gu(寸口) or Maek- Gu(脈口), In-yeong, artery in the side of neck, is located before Yeong-Geun(嚶筋), called as Jok-Yang-Myung-Maek(足陽明脈),so the part of In-Yeong-Maek means In-Yeong-Hyul(人迎穴) of Jok-Yang-Myu ng-Wi-Gyung(足陽明胃經) showing the artery in the side of neck. The part of Tson-Gu-Maek is that of artery in Yo-Gol(橈骨), beating source of Soo-Tae-Eum-Maek (手太陰脈) Of In-Yeong-Gi-Gu-Maek, In-Yeong-Maek mainly consists of Yang(陽), Gi-Gu-Maek of Eum(陰), so In-Yeung means physical disease, short of extra Eum component. They said that if In-Yeong-Maek was more than Gi-Gu-Maek, it meant physical injury, while Gi-Gu-Maek was more than In-Yeo-ng-Maek, it meant internal injury. In-Yeong-Gi-Gu-Maek is the one to distinguish the external and internal, the inside and outside, Eum and Yang, but there is no definite classification meth od to distinguish it, also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comparison of 1sung(1盛), 2sung(2盛), 3sung(3盛), interrelation with 12-Gyung-Rak(12經絡), change of maek phases, so necessary to set up the clear definition for In-Yeong-Gi-Gu-Maek.

For the two theories as to In-Yeong-Gi-Gu-Maek according to Nai-Gyung, the one is to diagnose the maek by comparing the In-Yeong-Hyul with Tson-Gu of Soo-Tae-Eum-Maek as Gi-Gu in the both sides of neck part, he other is to divide the left and right of Gi-Gu-Maek in to In-Yeong and Gi-Gu afterwards, but today it is difficult to compare and explain the medical theory afterwards owing to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In-Yeong-Gi- Gu-Maek at Nai-Gyung.

The diagnosis of In-Yeong-Gi-Gu-Maek at Nai-Gyung to distinguish the surplus and shortage of Eum and Yang up to now since Nai-Gyung has so important and diagnostic value as to grasp the exact meaning. Herewith, this researcher com-pared Nai-Gyung and medical theory afterwards, reported it to consider the fixed position and changing process of viscera and entrails arrangement of literatures introducing In-Yeong-Gi-Gu-Maek, examining the change of maek phases for normal maek and

a-bnormal maek of In-Yeong-Gi-Gu-Maek, considering the 1 sung, 2 sung, 3 sung maek phases in In-Yeong-Gi- Gu-Maek.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conclusion was reached as follows.

1. In-Yeong as the outside indicates external disease(外感), showing the surplus and shortage of Yang symptom by having Boo-Maek(浮脈) as Py-ung-Maek(平脈), Gi-Gu as the inside indicates internal disease(內傷), showing the surplus and shortage of Eum symptom by having Chim-Maek(沈脈) as P-yung-Maek(平脈).

2. In Pyung-Maek of In- Yeong-Maek as Boo-Maek, g-radual sinking of more floated changing maek because of disease means the improvement of di-sease, in Pyung-Maek of Gi- Gu-Maek as Chim- Maek, gradual floating of more sunken changing maek because of disease means the improvement of disease.

3. They said that disease of Jok-Gyung-Rak(足經絡) is cha-nged to that of Soo-Kyung-Rak(手經絡) when Jo-Maek(躁脈) appears whether In-Yeong-Maek or Gi-Gu-Maek.

4. With the exemples of 1 sung 2 sung 3 sung it was porned with the relation of Pyo-Ri-Soo-Jok(表裏手足). Therfore I can guess that this fact is a moment explained the Bu-You-Sa-Kyung(部有四經) mentioned in Nan-Gyung-18-Nan(難經 第18難).

5. I think that In-Yeong and Gi-Gu, as a diagnosis method which distinguish between the inside indicates internal disease and the outside indicates external disease, is required to study further researches.